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2024년 11월 15일(금)

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 개최

-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기념 및 인프라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 논의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11/15, 금)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원유 교역과 건설 사업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다면,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방, 방산, 스마트시티, 디지털과 같은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그동안 브루나이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며, 여러 측면에서 브루나이의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세안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아세안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